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에 도입된 전통재현 설계의 변화 양상

박아름* · 소현수**

*(주)TND조경설계사무소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Changes in the Design of Traditional Reproduction in the Exterior Space of Apartment Complex

Park, Ahreum* · So, Hyun-Su**

*Principal, TND Landscape Architecture Co., Ltd.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ive changes in traditional reproduction design introduced into external spaces across 30 apartment complexes developed from 1994 to 2023 in the Seoul, Korea metropolitan area. These changes were sub-categorized into three phases: 1) park-oriented; 2) brand-oriented; and 3) high-end-oriented. In the first change, traditional spatial components were classified into entrance facilities, screening facilities, landscape structures, ornamental objects, rest facilities, and water features. These components' variety decreased from the first to the third phase. This tendency relates to the shift in thematic space layout from "dispersed" in the first phase to "concentrated" in the third phase. In the second change, rest facilities' arrangement was applied through distinct typologies: territorial and borrowed scenery types in the first phase, Ji-dang (pond) combination type in the second phase, and Seokgasan (artificial rock garden) viewing type in the third phase. In the third change, pavilions were designed with a localized atmosphere using a modified reproduction approach during the first phase. In the second phase, traditional tiled-roof pavilions were introduced as a more literal reproduction. By the third phase, pavilions disappeared and were replaced by modern café-style rest facilities. In the fourth change's first phase, water features included natural and ecological elements such as streams and decorative wall fountains; during the third phase, waterfalls, streams, and Ji-dang integrated into Seokgasan increased significantly. Ji-dang persisted across all phases in various forms, while the Bangji (square pond) exhibited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design. In the fifth change's first phase, Seokgasan were created in stacked rock and subterranean stacked rock forms. In the third phase, Seokgasan evolved into a geological stacked rock formation exceeding 5 meters in height, representing the Korean Peninsula's scenic landscapes. In the first phase Gwaeseok (strange rocks) were independently placed as symbols of the Taoist immortal world. In the second phase, they were positioned as islands in Ji-dang or arranged to form themed rock gardens. By the third phase, a quantity of them were placed around Seokgasan.

Key words: Literal reproduction, Modified reproduction, Seokgasan(artificial rock garden), Spatial components, Thematic space

국문초록

1994년부터 2023년 사이에 조성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단지 3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1기 공원화, 2기 브랜드화, 3기 하이엔드화로 시기를 구분하여 외부공간에 도입된 전통재현 설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시설, 가림시설, 조경구조물, 점경물, 휴게시설, 수경시설로 구분한 전통 공간구성요소는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도입된 종류가 줄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제공간의 배치가 1기 분산형에서 3기 집중형으로 바뀌는 특성과 관련된다. 둘째, 휴게시설 배치는 1기 영역형과 차경형, 2기 지당 조합형, 3기 석가산 조망형이 적용되었다. 셋째, 정자는 1기에 변형적 재현 디자인의 토속적 분위기로 제작되고, 2기는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 +82-2-6490-2848, E-mail : hss@uos.ac.kr

직설적 재현의 기와지붕 정자가 설치되었다. 3기에는 정자가 사라지고 모던한 디자인의 카페형 휴게시설이 등장하였다. 넷째, 수경시설은 1기에 자연친화적·생태적 목적으로 설치된 계류나 장식 벽천이 도입되고, 3기에는 석가산에 부속된 폭포, 계류, 지당의 조합이 급격히 많아졌다. 지당은 다양한 형태로 전 시기 지속되었으며, 방지는 현대적 감각의 변형적 재현 디자인을 보여준다. 다섯째, 석가산은 1기 첨석형과 지중 첨석형, 3기에는 높이 5m 이상으로 한반도 절경을 표현한 지면 첨석형이 조성되었다. 괴석은 1기에 신선세계를 상징하며 독립 배치되고, 2기에 지당의 섬으로 놓이거나 암석 주제정원을 구성하였으며, 3기에는 석가산 주변에 다량 배치되었다.

주제어: 공간구성요소, 변형적 재현, 석가산, 주제공간, 직설적 재현

I. 서론

1989년 신도시 건설이 발표되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한 후,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대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녹지 확보와 지하주차장 조성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파트단지 지상부가 공원화되면서 조경설계의 역할이 커졌다. 2000년에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화 기조, 2013년 기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보다 자유로운 소비를 선택한다는 차별화된 트랜드를 반영한 하이엔드¹⁾ 아파트 등장 등 법·제도, 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차별화 설계도 바뀌었다. 이때 '전통' 테마도 한몫을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통을 기반으로 한 환경은 현대인의 생활 속에 정체성과 독자성을 부여하므로 환경 설계에서 공간의 장소성을 확보하는 도구로서 의사 결정자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설계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을 지녀왔다고 이해된 바 있다[1].

안계복 외(2006)는 '한국정원(K-Garden)'을 정의하며, 전통을 바탕으로 하지만 재창조에 무게를 두는 정원이고, 한국인이 그들 삶터와 교감하며 체화한 특유의 미감으로 일상적 기억과 생활 풍경을 담은 공간으로서 전통적 혹은 동시대적 재료와 방식으로 조영되는 현재 진행형 정원이라고 하였다[2]. 이러한 측면에서 설계자들은 전통에 얹매이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바라보면서 전통적 가치들을 현대 맥락에 맞게 적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렇게 전통요소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전통재현'이라고 명명한다.

현대 주거 생활 양식으로 비중이 점차 커지는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이 공동의 정원으로서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면서 이용자의 선호와 요구가 즉각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설계자가 이끌어가던 전통과 거주자가 선도하는 전통의 모습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한 전통재현 설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해 볼만하다.

본 연구는 '전통' 주제를 외부공간에 도입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약 30년 동안 전통재현 설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성격을 지닌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전통재현 연구가 있었으나 긴 시간적 범위의 대상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은 없었다(강철현:2000[3], 김다은:2005[4], 조진영:2005[5], 소현수 외:2006[1], 이용옥:2008[6]). 과거를 돌아본 연구의 결과는 시행착오를 줄여 전통에 대한 이용자 눈높이를 선도하는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전통재현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한발 다가서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외부공간 조경특화설계를 이끌어낸 시점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실행된 3년 후 준공된 아파트단지로 기준 삼아 1994년부터 30년 후인 2023년까지 준공된 아파트 단지를 설정하여 전통재현 설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 1999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2002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2008년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2010년 공동주택단지 CEPTED 인증 등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설사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조경공사 예산이 점차 늘어난 사실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준공용 대지의 조경 업무 위주였기 때문에 조경 예산은 거의 없었다. 2000년 브랜드 아파트 출시와 함께 평당 1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삼성 래미안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20만원으로 상승하였다. 2005~2010년 잠실 재건축 시조합과 건설사가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35~40만원 까지 올랐다. 이후 하이엔드 아파트와 작가정원 도입으로 인하여 약 100만원에 이르고 있다[7].

살펴본 바와 같은 공사비 상승의 여건은 전통재현 설계 양상의 변화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기 공원화(1994~2003년), 2기 브랜드화(2004~2013년), 3기 하이엔드화(2014~2023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2) 공간적 범위

현장조사에 유리하도록 수도권에 소재한 단지로서, 주차장의 1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이라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로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전통 테마가 설정된 설계 개념, 주제공간의 명칭, 전통 공간구성요소가 도입된 아파트단지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과조경』, 건설사 특화보고서, 신문기사에서 설계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98개 단지를 추출하였다. 그중에서 아파트단지를 소개하는 텍스트(TEXT)와 기본설계도에 표현된 전통 콘텐츠의 빈도수가 많은 단지로서 3개 시기별 10개 소씩 최종 선정하였다(표 1). 이들은 설계 테마가 전통요소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주제정원의 명칭과 도입된 시설로서 공간구성요소가 명료하게 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문헌 자료와 현장조사를 거쳐서 연구 대상 아파트단지 배치도에 전통 공간구성요소의 위치와 시설명을 표기하고 시공된 모습을 촬영하였다. 공간구성요소는 김영모(2017)의 분류에 의거하여 진입시설, 가림시설, 수경시설, 휴게시설, 점경물로 구분하였다[8]. 이때, 아파트단지 조경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배수시설, 조명시설, 포장시설, 조경구조물, 기타 시설은 제외하고, 설계 의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수목과 식재 기법은 제외하였다[1].

첫 번째 분석 단계로 공간구성요소별 빈도를 집계하여 1~3기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빈도가 보여주는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공간구성요소가 집중 배치된 주제공간의 분포를 파악하여 시기별 전통재현 설계의 변화 양상을 해석하였다. 두 번째는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도입된 공간구성요소를 대표하는 휴게시설, 수경시설, 석조 점경물 설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휴게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정자, 수경시

표 1. 연구대상지 목록

| 시기 | 번호 | 준공(년) | 세대수 | 소재지 | 설계 테마, 주제정원 |
|--------|------|-------|-------|--------------|-------------------------|
| 1 기 | 1-1 | 1999 | 486 | 경기도 광주시 | 전통적 공간 연출로 옛 정취 |
| | 1-2 | 2001 | 299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정갈, 고즈넉한 분위기-정자 |
| | 1-3 | 2001 | 732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안락한 삶의 공간-등지 |
| | 1-4 | 2001 | 384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옛 선인들의 정겨운 삶터 |
| | 1-5 | 2002 | 890 | 경기도 용인시 | 자연과 인간 공생, 공감, 교류 |
| | 1-6 | 2002 | 559 | 경기도 부천시 | 전통과 미래 주제형 주거 |
| | 1-7 | 2002 | 460 | 경기도 고양시 | 우주 생태 생성 원리 적용 |
| | 1-8 | 2003 | 795 | 경기도 용인시 | 약수터, 계류, 정자목, 옹기정원 |
| | 1-9 | 2003 | 656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한강 상징성- 시간의원, 부용원 |
| | 1-10 | 2003 | 853 | 서울특별시 동작구 | 환경친화적 단지- 숲속, 물, 꽃 |
| 2 기 | 2-1 | 2004 | 638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전통과 첨단 조화, 기억 잔존 |
| | 2-2 | 2004 | 1,829 | 경기도 성남시 | Antique Garden-계곡, 달 |
| | 2-3 | 2005 | 890 | 경기도 용인시 | 자연환경과 조화-벽천미당 |
| | 2-4 | 2006 | 1,196 | 경기도 의정부시 | 버드나무 지명 역사성-장수원 |
| | 2-5 | 2006 | 706 | 경기도 용인시 | 전통광장 |

| 시기 | 번호 | 준공(년) | 세대수 | 소재지 | 설계 테마, 주제정원 |
|--------|------|-------|-------|--------------|----------------------|
| 2 기 | 2-6 | 2006 | 1,098 | 경기도 성남시 | 땅 위에 그린 생태조경-초심원 |
| | 2-7 | 2008 | 744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경복궁원- 십장생원, 월대원 등 |
| | 2-8 | 2008 | 1,449 | 경기도 김포시 | 차경으로 녹시울 향상 |
| | 2-9 | 2008 | 1,348 | 경기도 안산시 | 사군자 기품을 닮은 마을 |
| | 2-10 | 2009 | 2,444 | 서울특별시 서초구 | 한국의 절경- 만물석산, 천암원 |
| 3 기 | 3-1 | 2016 | 1,6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반포명원-화담정원 |
| | 3-2 | 2017 | 1,148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왕의 정원- 진경산수원, 계류원 |
| | 3-3 | 2017 | 832 | 경기도 화성시 | 어반플리워-석가산 |
| | 3-4 | 2018 | 1,850 | 경기도 의정부시 | 공원 속 단지-산수첩경원 |
| | 3-5 | 2018 | 1,316 | 경기도 용인시 | 진경산수원 |
| 3 기 | 3-6 | 2019 | 4,932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송류원, 선유도원, 선유원 |
| | 3-7 | 2019 | 969 | 경기도 고양시 | 진경산수원, 사슴정원 |
| | 3-8 | 2021 | 758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매봉재산과 천년의 숲-낙수정 |
| | 3-9 | 2022 | 2,029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블루웨이브-산수첩경원 |
| | 3-10 | 2022 | 1,945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그니처 · 발원지 산수정원 |

설은 지당, 계류, 폭포, 석조 점경물은 석가산과 괴석의 디자인 양상을 고찰하였다.

대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결정하는 전통재현 디자인 방법과 관련하여 조경진 외(2001)는 직설적 재현, 추상적 재현, 해체적 재현으로 구분하였으나[9] 해체적 재현은 본 연구 대상 아파트단지에서 해당 사례가 적고, '추상적 재현'은 표현상 결과물을 명료하게 규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설적 재현'은 원형의 축조법, 형태, 비례와 크기, 재료를 따르는 것이며, 마감에 있어서 현대 재료와 기술이 일부 반영된 경우까지 수용한다. 이에 대응하는 '변형적 재현'은 축조법, 형태, 비례와 크기, 재료를 변형하더라도 원형과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로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시기별 아파트단지 외부공간 전통재현 설계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시기별 전통재현 설계의 변화 양상

1) 공간구성요소의 도입 빈도

문, 장승, 솟대는 '진입시설', 담장은 '가림시설', 석축, 화계·화오, 다리는 '조경구조물', 괴석, 석가산, 굴뚝은 '점경물', 상, 누정은 '휴게시설', 계류, 폭포, 지당, 샘·우물, 물학은 '수경시설'로 구분한 공간구성요소의 도입 상황을 집계하였다(표 2).

1기에는 18가지 공간구성요소가 도입되었고, 2기 14가지, 3기 12가지였다. 이것으로 보아 3기로 갈수록 공간구성요소의 종류가 줄어드는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1~3기에 반복된 공간구성요소는 문, 담장, 다리, 괴석, 석가산, 정자, 계류, 폭포, 지당, 물학이었다. 특히 계류와 지당이 20회, 정자 18회, 괴석 15회, 다리 13회, 담장 12회, 석가산 11회 순으로서 나머지 공간구성요소의 빈도와 크게 차이가 났다. 경사지에 놓이는 석축, 화계는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수경시설 선호와 관련하여 석가산, 괴석, 다리는 지속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표 2.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전통 공간구성요소의 빈도

| 시기 구분 | 진입시설 | | | 가림 시설 | | 조경구조물 | | | 점경물 | | | 휴게시설 | | | | | | 수경시설 | | | | | | |
|----------|------|----|----|-------|----|----------|----|----|---------|----|----|------|----|------|----|----|-----|------|----|---------|----|---|---|---|
| | 문 | 장승 | 솟대 | 담장 | 석축 | 화계 화오 | 다리 | 괴석 | 석가 산 | 굴뚝 | 상 | | 누정 | | | 계류 | 폭포 | | 지당 | 샘 우물 | 물학 | | | |
| | | | | | | | | | | | 석탑 | 평상 | 초정 | 너와지봉 | 정자 | | 자연형 | 인공형 | | | | | | |
| 1기 | 2 | 1 | 1 | 3 | | | | 1 | 4 | 5 | 1 | | | | 3 | 2 | 1 | 6 | 4 | 1 | 3 | 5 | 2 | 2 |
| 2기 | 3 | | | | | | | 1 | 4 | 4 | 1 | 1 | | | | | | 11 | 7 | 1 | 2 | 6 | 2 | 1 |
| 3기 | 1 | | | | | | | 2 | 1 | 5 | 6 | 9 | | | 1 | | | 1 | 9 | | 9 | 9 | | 3 |
| 계 | 6 | 1 | 1 | 12 | 1 | 2 | 13 | 15 | 11 | 1 | 1 | 3 | 2 | 1 | 18 | 20 | | 2 | 14 | 20 | 4 | | 6 | |

또한 장승, 솟대, 평상, 초정, 너와지봉 정자는 1기에만 도입되고, 3기에 석가산, 계류, 지당이 9번이라는 높은 빈도로 집계된 점은 석가산이 재건축 아파트단지 특화설계 아이템으로 자리잡아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도입된 분위기를 설명한다. 수경시설에서 지당이 시기와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한 것과 달리 계류는 1기 4개소, 2기 7개소, 3기에는 9개소였다. 과거에 계류를 단일 요소로 배치하였으나 근래에는 단지 중앙에 석가산, 폭포, 지당과 연계 설치하는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공형 폭포가 1기 3개소, 2기 2개소, 3기 9개소인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3기에 샘과 우물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물학은 전 시기 점경물로서 꾸준히 적용되었다. 이는 물학이 전통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보조적 역할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주제공간의 분포

아파트단지에서 전통 테마의 주제공간이 배치되는 양상은 단지 전체 분산형과 중앙에 만든 집중형으로 구분된다. 분산형은 1기 1, 3, 4, 5, 6, 7단지에서 6개소, 2기는 6, 7, 9단지에서 3개소, 3기는 2단지 1개소로 총 10개소에 적용되었다. 집중형은 1기 2, 5, 9, 10단지로 4개소, 2기는 1, 2, 3, 4, 5, 8, 10단지로 7개소, 3기에는 1, 3, 4, 5, 6, 7, 8, 9, 10단지 9개소로 총 20개소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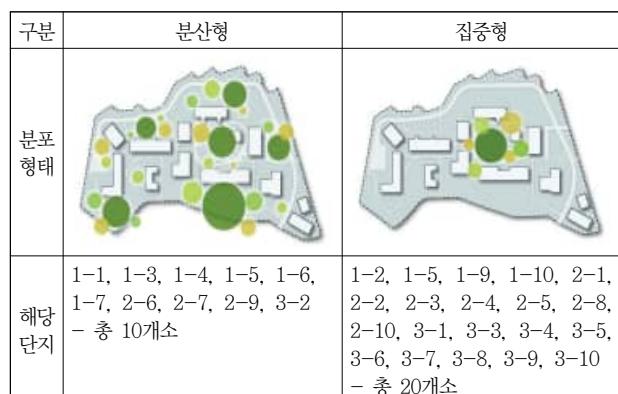


그림 1. 아파트단지 주제공간의 분포 유형

이때 1기에는 단지 전체 외부공간에 일관된 주제를 적용한 비율이 높고, 3기로 갈수록 하나로 독립된 주제정원에 전통재현을 국한시킨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선 시기일수록 설계 주제를 단지 전체 외부공간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3기 2단지는 경희궁 주변에 입지한 특성으로 단지 전체에 전통재현 요소를 도입하였으나 나머지 단지들은 하나의 주제정원에 표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단지 규모를 살펴보면, 1기 아파트단지는 900세대를 넘지 않는 반면, 2기는 6개 단지가 900세대 이상이고 2,444세대(2-10)까지 이르며, 3기는 8개 단지가 900세대 이상이고, 4,932세대(3-6)가 있다. 대규모 단지에 집중형 전통재현 방식을 적용하였음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2. 공간구성요소의 전통재현 설계 양상

1) 휴게시설

아파트단지 내 휴게시설의 배치 양상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조망 대상이 없이 최소한의 담장을 두르고 정자를 배치한 영역형이다(1-1, 1-6). 이는 자연의 풍광을 즐기기보다는 광장과 연접시켜 휴게공간으로서 역할한다. 두 번째, 주변의 우수한 조망 대상을 바라보는 조망점으로 정자를 설치하는 차경형이다(1-3, 1-5, 2-6, 2-7, 3-8). 아파트단지의 입지 환경과 관련된다. 세 번째, 정자와 지당을 연계 조성하여 볼거리를 만드는 지당 조합형이다(2-1, 2-6, 2-7, 2-9, 3-2, 3-6). 네 번째, 수직적 입체 경관요소로 석가산을 만드는 석가산 조망형이다(3-3, 3-4, 3-5, 3-6, 3-7, 3-8, 3-9, 3-10).

1기는 영역형과 차경형만 있는 것은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조망 대상을 만드는 시도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2기에 지당 조합형이 집중되고, 3기에도 지당 조합형과 석가산 조망형으로 휴게시설이 배치된 점과 대비된다(그림 2).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휴게시설을 대표하는 정자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초정과 너와지붕 정자는 1기에만 등장한 것은 전통재현 대상을 옛 정취를 지닌 토속주의적 시각으로 본 시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원 이미지를 구현하기에 유리한데, 이후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정과 너와지붕은 재료가 대체되었다. 2기에는 기와지붕 정자 11개소가 도입되다가 3기에는 1개소로 대폭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1기보다 설계 테마와 주제정원의 전통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2기에 고급화 전략과 함께 궁궐과 사대부 정원이 재현의 모티브를 제공하면서 10개 단지 중 8개 단지에서 기와정자가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기와지붕 정자가 보편적 전통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선호되었으나 3기에는 1개 단지만 기와정자가 있고, 모던한 디자인의 카페형 휴게시설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외부공간에서 휴게라는 필수 기능을 담당하면서 초점경관 요소로 시각적 우월함을 지닌 정자도 높은 시공비를 만족시킬 만한 효용이 사라지고 전통 테마 도입 전략이 바뀌면서 한 시기를 풍미한 유행의 흐름이 바뀐 셈이다. 이것은 ‘명원’, ‘왕의 정원’, ‘천년의 숲’이라고 표현한 주제하에 재현 대상을 이상향의 산수 또는 최상류 정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자연을 감상하는 조망점의 형태는 변하였지만, 바라 볼 수 있는 대상과 장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연 취향은 적극적으로 발현된 셈이다.



그림 2. 아파트단지 휴게시설의 배치 유형

세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1기에는 정자의 지붕에 벗짚, 너와, 목재, 기와 등 여러 가지 소재가 나타나고, 기성품화된 정자가 보급되면서 지붕, 기둥, 마루널의 재료, 크기 등 형태가 단순화되거나 비례감이 바뀐 변형적 재현을 보여준다(그림 3). 하지만 2기에는 대량 생산된 가벼운 보급형 기와 등 소재는 변화되었지만 정자의 전체 모습은 원형과 유사하다. 이렇듯 정자의 재현 디자인의 방향은 다른 공간구성요소에 비해서 직설적 재현 양상이 뚜렷했다.

파고라에 전통 문양의 형태나 문양을 도입한 디자인이 있으나(1-3, 1-4, 1-8, 1-10, 2-7, 2-9) 문양과 패턴을 조합한 사례는 점차 사라졌다. 전통조경요소의 키치적 변용²⁾에 대한 비판처럼 대중화되거나 상업화된 전통 요소는 정교하지 못하고 진부하게 여겨진다. 변형적 재현이 현대공간에서 공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정자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았다.

2) 수경시설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에서 물의 사용은 유지관리의 효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끊임없이 고민되어왔다. 그럼에도 브랜드화와 고급화 전략은 이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수공간은 자연친화적이며 생태적 단지라는 측면과 함께 역동성있는 볼거리로 차별화된 경관 요소가 된다. 이에 수경시설은 1기 17개소, 2기 19개소, 3기에 46개소로서 연구 대상의 아파트단지에 높은 빈도로 도입되었다. 특히 3기에 급격한 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정한 영역을 형성하는 수공간으로서 물 흐름의 형태로 구분되는 계류, 폭포, 지당이 중심이 되는데, 수경시설의 형태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첫 번째, 지당은 방지, 곡지, 혼합지가 있으며, 가장 많은 방지는 1기에 독립적으로 조성되지만, 2기에는 정자와 하나의 조합을 이루고 3기에는 카페형 휴게시설과 함께 조성되었다. 곡지는 1기에 단독형으로, 3기에 석가산과 함께 집중 조성되었으며, 혼합지는 3개 시기마다 1개소씩 보인다(1-6, 2-9, 3-6). 한편 재현 디자인 기법과 관련하여 원형이 뚜렷한 방지의 변형적 재현 사례들이 돋보인다. 방지의 간결한 조형 언어가 설계를 통해서 모던하게 변형되기에 양호한 여건을 지녔기 때문이다. 방지와 섬을 조형적으로 해석하여 현대 재료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만든 경우(1-10, 3-2, 3-7) 안전을 고려하여 깊이를 얕게 조성하고 하늘이 반사되도록 짙은 색 석재를 사용하거나 방지 경계부 석재의 가로, 세로 폭의 비율을 조절하여 모던하게 시공하였다.

두 번째, 계류는 과거 전통성과 한국성 개념이 혼재된다는 비판과 함께 이제 가장 한국적 자연경관으로 자리매김한 분위기다. 산과 계곡으로 형성된 한국의 지형경관을 재현 대상으로 설정한 사실을 설계도서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계류는 3기에 집중된 석가산, 폭포, 방지와 연계되었다. 1, 2기에 도입된 계류는 현재 건천화되었으나 계곡을 형상화한 직설적 재현 결과이며, 화강석으로 가공된 수로(1-4, 2-7)는 변형적 재현 사례이다.

세 번째, 폭포는 기존 경사지에 돌을 쌓아 만든 자연형(1-3, 2-6)이 있었으며, 인공형은 1기에 석가산형 폭포 1개소와 동양화 이미지의 벽천형 폭포 2개소가 있다. 인위적 형태의 벽천형 폭포는 2기부터는 확인되지 않았다. 3기의 9개소는 모두 석가산에 적용된 자연형 폭포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1기에는 수경시설이 특정한 형태로 집중



그림 3.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정자의 변형적 재현 사례

되지 않고, 단독 수경시설을 여러 군데 조성하였다. 인공적 디자인의 벽천이 도입되는 등 장식적 기능에 충실한 분위기는 2기에 사라졌다. 2기에 지당과 계류가 주류를 이루고, 3기는 곡지, 폭포, 석가산 조합으로 귀결된다(그림 4).

3) 석조 점경물

석가산의 형세가 기술된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가산기(假山記)』에서 “가산의 형세가 좌우로 뻗어 내렸다가 뾰족한 곳은 봉우리가 되고 볼록 솟은 곳은 고개가 되며 우뚝한 곳은 골짜기가 되고 빼빼한 곳은 기슭이 된다”고 하였다[13]. 또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지변석

가산(池邊石假山法)’에도 “못가에 첨첩이 쌓아 산을 만들어 바위와 구렁이 그윽하고 깊고 맑게 한다”고 기록되었다. 석가산의 조성기법을 첨석형, 지변(池邊)첨석형, 지중(池中)첨석형으로 구분한다[13]. 돌의 수직적 집체를 형성하는 방식은 같은 지변 첨석형 석가산은 첨첩이 쌓아 올린 가산에 심산유곡의 계류가 흐르는 유수(流水) 구조로서 흘러내린 물을 받는 곳지를 조성한다. 지중 첨석형 석가산은 못 안에 괴석을 쌓아 섬을 만든 유형이다.

석가산은 1기 1개소, 2기 1개소, 3기 9개소에 도입되었는데, 첨석형 1개소(3-2), 지중 첨석형 1개소(1-7) 이외의 모든 단지에 지변 첨석형이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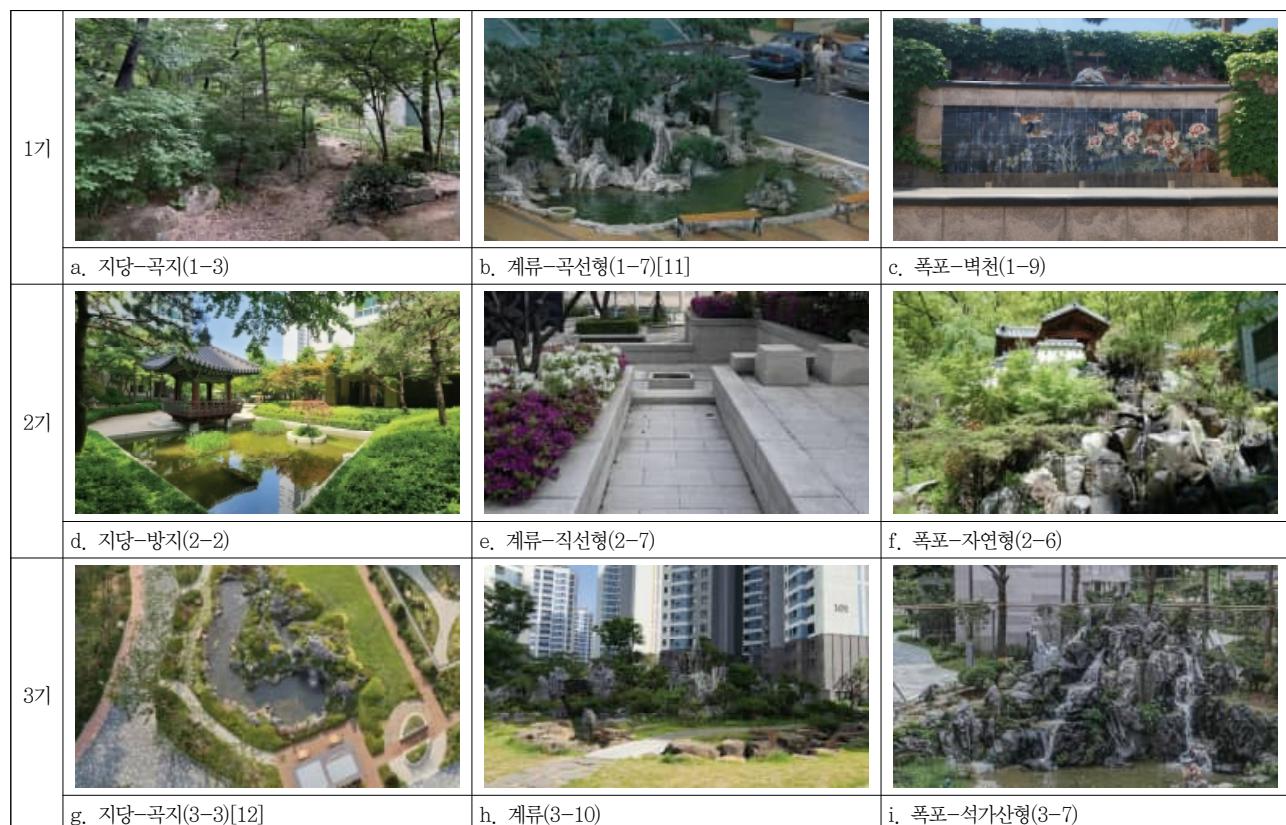


그림 4.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수경시설의 변화 양상



그림 5.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방지의 변형적 재현 사례



그림 6. 전통정원의 석가산 사례



그림 7.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석가산의 유형

첩석형 함양의 정여창 고택과 지중 첨석형 함안의 무기연당 등 현존하는 조선시대 전통공간의 석가산 높이는 2m 내외이다(그림 6). 초창기 석가산은 2~3m 내외로 원형과 흡사한 규모지만(1-7), 2기 후반부터(2-10) 아파트단지의 면적이 넓어지고 건물이 고층화된 환경에서 석가산의 규모가 5m 이상, 최대 8m에 이른다. 이들은 만물석산(2-10), 진경산수원(3-1, 3-7, 3-8), 산수첨경원(3-4, 3-9), 선유도원(3-6), 산수정원(3-10)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영역에 정원을 제공한다(그림 7). 진경산수원과 산수첨경원은 보통명사처럼 반복되기도 했는데, 한반도의 절경을 대표하는 금강산 만물상 구역, 설악산 형제바위 등 천연의 이상향을 재현 대상으로 삼았음을 설계 정보에서 확인하였다.

모던한 형태의 높은 건물로 둘러싸인 위요된 공간에서 첨단 기술로 구현된 석가산은 자연의 극상을 표현함으로써 인공성이 강한 주거단지와 대비되는 생경한 이미지로 거주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김으로써 건설사 브랜드 구분 없이 고착화 되었다.

괴석은 거대한 규모의 석가산과 달리 점적인 작은 석조 점경물로서 1기에는 녹지 위에 경관석으로 놓였고(1-2, 1-3, 1-4, 1-7), 지당에도 도입되었다(1-3). 관련된 설계도서에는 삼신산, 삼신봉, 오행산(1-7)이라는 명칭이 기술되었다. 한편 필로티 하부 자갈을 포설한 바닥면에 놓은 괴석은(1-8) 일본 정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데, 매끈한 석재 포장 위에 놓은 경우(2-8)도 전통과 거리가 있는 이질적 분위기를 만든다.

2기에는 방지에 섬을 대신하여 괴석을 배치하거나(2-1, 2-6, 2-9) 녹지에 다수 배치하여 ‘천암원’, ‘천년의 정원’(2-10)이라는 주제정원을 조성하였다. 3기에는 석가산과 인접한 지당 주변에 괴석을 배치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1기는 석가산보다 경관석이 필요한 곳에 신선세계를 상징하는 괴석을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에 집중했다면, 2기에는 방지에 섬을 대신하는 조망 대상이 되었고, 3기에는 석가산에 부속된 경물로 넓은 영역에 다수 배치되었다(그림 8).



그림 8.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괴석의 배치 유형

IV. 결론

1994년부터 2023년 사이에 조성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단지 3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공원화, 브랜드화, 하이엔드화 시기로 구분하여 외부공간에 도입된 전통재현 설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시설, 가림시설, 조경구조물, 점경물, 휴게시설, 수경시설로 구분한 공간구성요소는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도입된 종류가 줄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1기 분산형에서 3기 집중형 전통 테마의 주제공간 배치로 전환되는 사실과 연계된다. 즉, 대규모 단지에 집중형 주제공간을 설정하고 석가산을 중심으로 계류, 폭포, 지당, 괴석, 정자가 함께 설치되는 양상이다.

둘째,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에서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휴게시설의 배치는 영역형, 차경형, 지당 조합형, 석가산 조망형으로 구분된다. 주변 경관에 영향을 받아 영역형과 차경형으로 배치된 1기와 달리, 2기 지당 조합형과 3기 석가산 조망형을 도입한 것은 휴게공간에 조망 대상을 적극적으로 조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휴게시설로서 정자는 1기 토속적 옛 정서를 제공하는 변형적 재현 디자인에 해당되고, 2기는 고급화 전략으로 전통성을 대표하는 직설적 재현의 기와지붕 정자에 집중되었다. 3기에는 전통정자가 사라지고 모던한 디자인의 카페형 휴게시설이 등장하였다.

넷째, 가장 높은 빈도로 도입된 수경시설은 3기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1기에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 측면에서 설치된 계류나 장식 목적의 벽천과 다른 양상으로서 3기에는 석가산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류는 한국적 지형 경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당은 전 시기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는데, 방지는 현대화한 변형적 재현 디자인을 보여준다.

다섯째, 수직적 석조 점경물인 석가산은 1기 작은 규모의 첨석형, 지중 첨석형에서 3기 지면 첨석형으로 변화되었다. 고층 건물로 위요된 아파트단지의 환경에서 높이 5m를 넘기며, 진경산수원, 산수첩경원으로 명명된 한반도 절경을 표현

하였다. 소규모 점경물인 괴석은 1기에 삼신산 등 신선세계를 상징하며 단독 배치되고, 2기에 지당안에 섬으로 놓이거나 암석 주제정원을 구성하였으며, 3기에는 석가산에 부속된 경물로 다수 배치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전통재현 설계는 30년간 공원화, 브랜드화, 하이엔드화로 고비용을 투입하며 고급스럽게 변모했고,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환경과 선호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다. 모쪼록 예술적 창조성을 견지한 현대적 감각과 기술로 한국적 정서와 감각이 정교하게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주 1) ‘아크로(ACRO)’로 시작된 하이엔드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상품성에 한정된 공급량으로 희소성이 높아 차별화된 주거지로서 기존 아파트 브랜드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말한다[17].

주 2) 미적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부류의 이미지들은 예술적 창조성과 진부함 사이에서 대단히 유동적인 모습으로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를 키치(kitsch)라는 용어로부터 유래하는 미적 체계”(김민수, 1995)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키치를 비롯한 대중적인 미학에 대한 평가는 ‘저급한 미학적 가치, 정교하지 못함,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 연연해하는 모습’ 등으로 편향된 경향이 주를 이루어왔다 [18].

REFERENCES

- [1] 소현수, 김해경, 최기수(2006). 아파트 외부공간에서의 전통 재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2): 86-100.
- [2] 안계복(2016). 한국정원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실천 전략 연구. *산림청* 20-55.
- [3] 강철현(2000). 아파트 단지 내 전통공간 구성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도 LG수지빌리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다은(2005). 전통마을과 아파트 단지의 공간구조 비교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조진영(2005). 공동주택단지 전통조경요소 인지도 분석: 서울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영옥(2008). 전통 조경 요소를 도입한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의 설계연구. *홍익대학교 건축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은수(2024). 건설사 조경시공 단가. *라펜트(2024.07.08.)*.
- [8] 김영모(2017). 알기쉬운 전통조경시설사전. *동녘*.
- [9] 조경진, 김정호(2001). 조경설계에 있어서 전통 정원의 현대적 재현의

- 특성: 파리 서울 공원 현상공모 출품작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8(6): 84–95.
- [10] 환경과조경(2019). 9월호. DMC 리슈빌 더포레스트.
- [11] 환경과조경(2002). 10월호. 일산 대화지구 한라 비발디 아파트.
- [12] 환경과 조경(2018). 10월호. 동탄역 푸르지오.
- [13] 윤영조, 윤영활(2010). 한국 전통 석가산의 유형과 역사적 변천. 한국 조경학회지 38(3): 83–97.
- [14] 환경과 조경(2009). 08월호.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 [15] 환경과 조경(2017). 06월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 [16] 환경과 조경(2022). 02월호.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 [17] 이지은(2022). 여성소비자신문(2022.02.25.).
- [18] 홍형순, 이유경, 김도경(2002). 전통조경요소의 키치적 변용과 그 양상.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4): 66–78.

원고 접수 일: 2025년 2월 10일
심사 일: 2025년 3월 13일 (1차)
제재 확정 일: 2025년 3월 15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